홈페이지 주소▸http://www.iwate-ia.or.jp/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2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2012 이와테 국제교류

봄 Vol.73

특집➤국제 리니어 컬라이더로 이와테는 어떻게 변할까?
01-03 시바우라공업대학 학장 무라카미 마사토 씨 인터뷰
04 이와테현 수석 ILC 추진감 오다이라 히사시 씨 인터뷰

특집➤피재지를 활기차게 ~사람을 잇는 부흥지원~
05 해외 경험을 지역의 부흥으로
06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오쓰치 지역 만들기~

07-08 Close Up
■뉴욕에서 온 마음을 피재지로
■영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활기를

09-10 평성 23 년도 협회 사업 및 재무 상황

특집 「국제 리니어 컬라이더 (ILC) 로 이와테는 어떻게 변할까 ? 」

기타카미 산지의 지하에 세계에서 유일한 거대 지하실험시설이 건설되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모여들어 국제적 연구도시가 완성된다. 이런 SF 소설에 나올 것 같은 미래도시가 이와테에서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2013 년 여름, 국내 후보지가 결정되는 국제 리니어 컬라이더 계획. 이와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과 이와테 국제화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시바우라공업대학 학장 무라카미 마사토 씨 인터뷰

—해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시절,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일 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현외에 나간 적도 없었고 정보는 책 등에서 얻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막연히 세계를 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은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풍요로움을 실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고등학생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화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의 유학은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과학의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학의 진보에 의해 세상이 편리하게 되는 것, 세상에 공헌하는 일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과학잡지의 부록에 간단한 실험이 실려있어서 매달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와 대단하다」며 감동한 일이 기억납니다.

—현재 이와테가 유치하려는 리니어 컬라이더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인지 모두 알고 싶어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이 원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자는 원소라고도 합니다. 그 구조는 전자와 원자핵이며,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자로 구성됩니다. 전자는 기본적인 입자이며, 양자와 중성자에는 아직 더 작은 구조가 남아있습니다. 양자와 중성자를 충돌시켜 부수면 기본적인 입자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딪히다 또는 충돌을 영어로 컬라이드, 충돌시키는 기계를 컬라이더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 과학자가 생각해낸 것이 가속기 (컬라이더) 입니다. 가속기에서 충돌시켜 나온 물질을 자세히 관찰하여 양자도 많은 입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인 것인지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한편, 이론은 있습니다. 소립자 분야는 유카와 히데키 교수 이후, 이론과 실험의 양쪽에서 진보해 온 학문입니다. 일본인도 공헌한 이론 중에서, 이것은 있을 것이다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소립자를 「힉스 입자」라고 합니다. CERN (유럽 원자핵 연구기구) 가 그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여 떠들썩했습니다. 충돌 후 나온 물질에서 그것을 찾고 있지만, 같은 무리와 결합되어버리는 것도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실험도 분석도 매우 어렵습니다.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정 짓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기초 부분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원형가속기입니다. 입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태양 거리만큼을 가속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형으로 만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으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입자는 매우 작아서 각각 덩어리를 만들어 충돌시킵니다. 부서져나온 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천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작업한다고 해도 실험도 분석도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기본입자 무리를 충돌시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형가속기입니다. 선형에서 직선으로 운동시키므로 제어하기 쉬우며, 지금까지 충돌시킬 수 없었던 작은 것들도 충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꼭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소립자가 발견되면 그 성질을 조사해야 합니다. 선형가속기로 기본적인 충돌만 일으켜 분석한다면 매우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리니어 컬라이더입니다. 세계의 연구자들은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 다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테는 다음 단계에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테가 후보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땅속에 긴 터널을 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반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지반을 포함한 지리적 조건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일본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시설이 손상되지 않는 지반을 생각한다면 이와테현과 후쿠오카현의 두 장소밖에 없습니다. 후쿠오카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와테는 화강암으로, 특히 기타카미 산지는 지반이 단단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후보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어 컬라이더로 어떤 미래가 기대됩니까?

물질의 기원을 발견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에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응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과학의 가장 좋은 점은 과학 자체의 진보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면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딘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몰랐던 것이 이와테현에 있는 시설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세계적 시야로 생각해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CERN 의 예를 봐도 세계 각국에서 가족과 함께 연구자들이 모여듭니다. 국제화라는 관점에서도 일본내에서 예가 없었던 선진적인 지역이 됩니다. 이와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술연구도시를 실현함에 있어, 세계에 관심을 가질 젊은 세대 인재 만들기를 위해 환경, 언어 이외에 의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실력보다는 상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양성입니다. 어느 경제학자의 이야기 중에 예전의 미국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러 나라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감을 사버려 결과적으로는 잘되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각 나라가 문화와 습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역에 융화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된 국제화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유연성과 대응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언어도 따라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기획하여 일본학생과 동남아시아의 유학생이 1 박으로 일본의 공장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텔의 방 배당은 일본학생과 유학생을 함께 머물게 했습니다. 습관과 종교도 달랐지만, 다음 날 아침 매우 친해져 서투른 영어로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잘 몰랐던 태국과 베트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친구가 된 것이죠. 젊음이란 좋습니다. 단 하룻밤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학은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은 유학생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수속이 일본어라는 것입니다.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 외국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도 배치해 두었지만, 담당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뒤처져 있습니다.

―해외의 학생은 자신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나라를 이동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독창적인 연구가 생겨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 나라의 연구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 모여 토론을 하는 사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생겨납니다. 자신이 사는 세계에서만 생각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역사관이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로써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단기간이라도 좋으니 해외에 나가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람들을 초빙할 수 있는 제도개혁도 포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의 대학은 외국 교수가 너무 적습니다. 현재 학문분야는 비교적 국제화되기 쉬운 분야이므로, 더욱 해외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이 글로벌화를 말하는 배경에는, 민간기업이 급속히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도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취직하기가 어려워지는 데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좀처럼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사귈 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원래 낯가림을 하는 편으로 해외에서도 가능하면 교류보다는 혼자서 조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힘들어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이 즐거워집니다. 한 번 친구가 생기면 그 관계가 더욱 넓어집니다.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획기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분야의 이야기라도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무라카미 마사토 씨 프로필

1955 년 모리오카시 출생. 모리오카 제일고등학교 재학 중 샌프란시스코로 1 년간 AFS 유학. 도쿄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신일본제철주식회사 입사. 제일기술연구소에서 초전도와 형상기억합금 연구에 관여함. 그 후, 초전도공학연구소 연구실장, 부장. 나고야대학, 이와테대학의 객원교수 역임. 2003 년 4 월 시바우라공업대학 공학부 재료공학과 교수에 취임. 2008 년 4 월부터 부학장, 2012 년 4 월 학장에 취임.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전도에 의한 인간 부상에 성공, 일경(日経)BP 상, 1991 World Congress Superconductivity Award of Excellence 등을 수상. 또한, 세계최강의 벌크초전도자석 개발에도 성공하여 Nature 에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초전도분야에서는 논문 인용 건수가 세계 톱 10 에 들어간다.

이와테현 정책지역부 정책추진실 수석 ILC 추진감 **오다이라 히사시 씨**

국제 리니어 컬라이더(이하 ILC) 건설후보지로 본현의 기타카미 산지, 세후리 산지(후쿠오카,사가)등 6 개 지역이 올라있습니다. 이와테현에서는 ILC 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기술연구권역을 만들기 위해 ILC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테 현민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현 ILC 추진실의 오다이라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멀티 내셔널 사이언스 시티

만약 연구소를 건설할 경우 세계 각국에서 연구자 3,000 명, 가족을 포함하여 1 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ILC 는 학술연구기관이므로 유치를 하여도 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과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이 모이므로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기타카미 산지의 동쪽이므로 비교적 리쿠젠타카타 등의 피재지에서 가깝습니다. 피재지 부흥을 주시하면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과학기술산업파크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재육성, 공동연구 등을 실시합니다. 1 만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약 2,100 가구의 건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일본인과의 공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공생에 의한 세계 최첨단 과학창조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권역 (멀티 내셔널 사이언스 시티)」을 컨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ILC 와 부흥

현재 전기산업은 현 밖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산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LC 는 세계 최첨단의 가속기입니다. 가속기라는 말은 친숙하지 않지만, 지금도 동북 지방의 가속기관련산업 규모는 6 조 엔으로 방사선기술, 타이어제조, 의료기구, 샴푸 등 산업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속기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있습니다. ILC 의 건설기간 10 년과 운영기간 20 년의 「건설」과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파급 효과는 산업유발금액 약 4.3 조 엔, 유발고용자수 약 25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치 자금

건설에는 8 천억 엔이 든다고 하지만, 그 반은 유치한 국가가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미국 등 연구에 참가하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단, 도로, 커뮤니티센터 등은 지자체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민간 투자 등 지역의 지혜를 모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현은 부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부흥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현의 부흥계획은 2011 년부터 8 년간입니다. ILC 는 내년 여름에 국내 입후보지가 후쿠오카인지 이와테인지 어느 한 지역으로 결정됩니다. 그로부터 최대한 빨라도 2018 년 정도부터 최초의 공사가 시작되며 가동은 2025 년 이후입니다. 부흥이 끝난 후에 새로운 산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치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므로 꼭 해내야 합니다.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ILC 를 중심으로 한 동북 지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ILC 의 필요성

이와테대학, 도호쿠대학, 이치노세키고등전문학교, 지역의 기업 등이 가속기산업에 참여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럽 합동 원자핵 연구기관(CERN) 이 있는데, 이 CERN 가 생겨나서 부근 마을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레이싱카를 만듦으로써 시판하는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졌으며, 아폴로계획에 의해 새로운 소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ILC 로 인해 기술이 산업에 환원될 것입니다.

방사선 위험성도 지적되지만,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기사가 방에서 나가거나 문에 방사선 마크를 붙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터널도 운전 중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멈췄을 때에는 일반인도 내부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츠쿠바에도 이것보다 작은 시설이 있어 현내의 고등학생 등도 견학을 가보고 감격하여 돌아오기도 합니다.

과학을 가까이에

가까운 미래, 할머니가 밥을 드시면서 「힉스 입자라는 건 이런거야」라고 손자에게 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꼭 이와테의 젊은이들에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설렘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ILC 를 가까이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해외 경험을 지역의 부흥으로

~TOMODACHI 썸머 2012 소프트뱅크 리더십 프로그램에 동행하여~

각국에서의 지진재해에 대한 부흥지원은 피재지의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피재지의 부흥을 담당할 인재육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피재 아동・학생의 초대, 일본정부 해외 학생과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와의 교류를 기본으로 한 부흥지원의 하나로 미국정부 주도의 TOMODACHI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본협회의 오야마 미와 씨가 동행했습니다.

1,971 명의 응모자로부터 선발된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의 고등학생 300 명이 「TOMODACHI 썸머 2012 소프트뱅크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명문교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에서 여름방학 3 주간을 리더십과 지역공헌에 관해 공부하는 썸머 섹션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첫 해외체험입니다.

2012 년 7 월 23 일. 대학에 도착했을 때, 먼저 앞으로 3 주간 생활을 함께하며 서포터해 줄 현지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어시스턴트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희망하는 테마 (주택, 상업과 고용, 공공 공간, 에너지와 지속가능성) 를 정하여 25 명씩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일본인의 어시스턴트와 현지 어시스턴트가 함께 하며 수업과 과외활동, 기숙사 생활을 서포터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Y-PLAN (Youth-Plan, Learn, Act, Now!) 이라는 지역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합니다. 약 3 주간에 걸쳐 버클리란 도시를 알고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버클리시에 그 계획을 발표,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다시 동북 지방으로 가지고 돌아와 각 지역 개선에 쓰이게 됩니다.

교실에서는 현지 교원이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지도합니다. 고등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수업 스타일,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고 자유롭게 마시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업 중에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도 괜찮다는 것 등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수업에서는 버클리 시내를 걸으며 조사하고 자신들의 고향과 비교하여 도시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전거가 주차요금대에 묶여 있다.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누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예산은?」 등을 그룹에서 서로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정리해 갑니다. 버클리시청의 담당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포스터를 정리하고 영어로 하는 스피치를 연습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많이 긴장한 학생도 있었고 반대로 스티브 잡스와 같이 당당히 발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주의 수도인 세클라멘토 관광, 홈스테이, 지역활동 참가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미국 생활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중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쿠마가이 마사야 씨 (모리오카키타고교・3 학년) 는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서로 알 수도 없었던 미야기와 후쿠시마의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고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사이좋게 같이 지낼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최대의 수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테에서 떨어졌던 3 주간은 장래의 목표와 진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쓰치쵸 출신의 기쿠치 켄타 씨 (모리오카키타고교・3 학년) 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일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하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며 마음이 통했던 것, Y-PLAN 에 최선을 다한 것,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힘썼던 것,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했던 것, 미국의 즐거움을 만끽한 것 등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장래에 가업을 이어서 노력하겠다.」 「간호사가 되어 고향 사람들을 돕고 싶다.」 「세계로 나가 활약하고 싶다.」고 저마다 장래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해 준 고등학생들. 각자 목표로 하는 곳에서 지역의 힘이 되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의 「진심」이 전해지는 3 주 간이였습니다.

TOMODACHI 썸머 2012 소프트뱅크 리더십 프로그램

미국대사관과 미일의회가 주도하는 일·미교류사업 「TOMODACH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소프트뱅크가 운영자금을 제공한 프로그램. 2012 년 7 ~ 8 월 3 주간, 피재 3 현의 고등학생 300 명이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캠퍼스에서 리더십과 지역공헌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오쓰치 지역 만들기~

ＮＰＯ「모임~오쓰치의 지역과 사람을 발전시킨다~」를 설립하여,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심으로 피재지의 부흥에 노력하고 있는 모토마치 사치코 씨.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에서 「피재지 커뮤니티 형성과 국제협력에 대해서」를 테마로 강연한 내용 중에서 오쓰치의 현재와 부흥을 위한 노력에 관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진재 당시의 오쓰치는 허허벌판인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집을 세울 수도 없고, 구획 정리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풀이 무성해져 있습니다. 가설 주택은 산속에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에 주택을 세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아직도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9 월 21 일, 22 일의 오쓰치 축제에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행사나 축제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재 직후는 음식, 전기, 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복구 단계에서는 전기, 식사, 의료 등이 복구되어서,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원의 정도, 방식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저도 AMDA(아시아 의사연결협의회)라는 긴급 의료 단체에서 병원이 없어지거나, 약이 휩쓸려간 곳에 우선 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보험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무료이면 그 지방에 있는 의사의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시점에서 이 밸런스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구에서 부흥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색 상태라는 것이 현재 피재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는 가까운 곳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으로써 발휘됩니다. 옛날의 단층 연립 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시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도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지역으로써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한 번 더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대한 생각」「애착」「이웃을 알고 있다」「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와 같은 옛날 고유의 장점을 소중하게 여겨 재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재 후 지역 만들기는 누가 주체가 되어 맡겨지는 것일까요. 이「누가」라는 것이 지역 만들기, 부흥에 있어서 큰 난관이 되어갑니다. 지역의 사람을 「참가」에서 「참획」으로, 그리고 「주도」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지원자・외부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키고 있다」에서 마지막은 지역 사람이 「우리가 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 지원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나 지원의 생각하는 방법을 추궁하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에서는 계속하는 것, 계속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쓰치나 야마다쵸와 같은 작은 지역에서는 점점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일이 없고, 계속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생활, 일, 보람과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재자에게 식사 공급 등도 지원해줍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도 있으면,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큰 과제가 됩니다.

피재지에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그것에 맞는 것」「쓸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서포트하는 기술의 이전,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와도 실제로는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각의 경우에 맞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후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lobal 한 매의 시점과 Local 한 벌레의 시점, 양쪽의 시점이 모두 필요해지게 됩니다.

저는 제방을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흥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그들만의 힘을 키워가게 하는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활기차게 생활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횻코리효탄지마(뜻밖의 표주섬)」이 있는 오쓰치쵸. 이 가사에도 있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라고 하는 말을 격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ＮＰＯ모임

~오쓰치의 지역과 사람을 발전시킨다~

사무국장

모토마치 사치코 씨

이학요법사로서, 대학병원 재활원과 근무. 지역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해외의 활동으로는 영국 장애인 시설에서 볼런티어・케어워커와 청년 해외협력대에서 코스타리카 파견, 내각부 국제청년육성교류사업 코어리더 육성 프로그램 등에 참가.
동일본대진재 시에는 NGO AMADA(Association of Medical Doctors of Asia : 아시아 의사연결협의회) 와 함께 카마이시・오쓰치쵸에서 긴급 구원 활동. 2012 년 6 월부터 오쓰치쵸에서 NPO 모임을 설립하여,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 재건을 향한 활동을 개시.

VOICE POST (보이스 포스트) –이곳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

뉴욕에서 온 마음을 피재지에

일본을 걱정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뉴욕 거주의 건축가 다카하시 코코씨와 우치다 미오씨가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이스 프로젝트」입니다.

2011 년 3 월 19 일, 이와테의 피재를 알게 된 미국 뉴욕 거주의 건축가 다카하시 코코씨와 7 명이 맨해튼 중심에 있는 유니온 스퀘어에서 피재지를 위한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힘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활동입니다.

보이스 포스트. 일본을 위한 응원 메시지에는 세계 각국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모여있습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다카하시씨. 진재 지원의 활동 시, 가나 출신인 운전기사의 택시에 탔습니다.「『가나는 일본의 지원이 큰 힘이 되어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일본 엔으로 3~4,000 엔의 택시비를 깎아 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본토의 뉴욕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본을 걱정하여 지원해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통해, 일본이 세계의 행복을 위해 쌓아올린 역사를 실감했습니다.」

메시지를 모으는 일은 열심히 작업을 도와준 볼란티어 동료들, 인터넷상에서 피재지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모으고 있던 「세계에서 일본으로 1,000 의 메시지」의 무라이 유미코씨와의 만남이나, 공감해준 기업, 컬럼비아 대학의 지원을 받은「보이스 프로젝트」로 넓혀져 갔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현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별로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돌아온 다카하시씨. 구조대를 파견해준 각 나라를 위한 감사의 메시지가 일본어만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밖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본에 전하고, 일본의 목소리를 밖으로 전한다. 그 사이를 연결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그때 격려를 받았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만날 외국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코우코씨
(건축가, 하나마키시 출신)

▲우치다 미오씨
(건축가・도쿄도 출신)

미국 뉴욕에서 응원 메시지를 모은 천을 꿰매서, 피재지에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HOPE FOR JAPAN」의 다카하시 코코씨와 우치다 미오씨, 인터넷상에서 세계의 메시지를 모아 전하는「세계에서 일본으로 1,000 의 메시지」의 무라이 유미코씨가 만나서 시작된 프로젝트.

진재로부터 1 년 이상 지난 지금, 응원 메시지를 교재화하고, 진재 직후에 전해지지 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테 레인보우 -Iwate Rainbows-

영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활기를

리쿠젠타카타시와 오후나토시에 사는 필리핀과 칠레 출신의 여성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회화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오후나토시에서 실시한 영어지도자 양성강좌를 수료한 스가와라 엘바 씨 (필리핀 출신) 등의 「이와테 레인보우 (Iwate Rainbows) 」멤버 5 명은 영어회화교실의 선생님으로 즐거운 수업 만들기를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멤버도 어린이들도 서로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거나 신체를 이용한 게임을 하는 동안 친구가 되었습니다」라며 이야기하는 무라카미 오르텐시아 씨 (칠레 출신) . 몸의 부분 모양을 본뜬 종이를 사용하는 일본의 후쿠와라이 (make a face) 라는 놀이와 딱지놀이 등 게임 시간은 어린이들에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 」라는 소리로 언제나 길어지고 맙니다. 어린이들은 노래와 게임을 통해 간단한 영어 단어와 친해집니다.

교실에서는 greetings (인사와 자기소개) 등 4 가지 파트를 강사가 분담해 가르칩니다. 하나의 활동은 보통 5 분에서 10 분으로 10 명에서 30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가합니다. 다양한 나이의 어린이들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만, 매회 담당하는 파트를 바꾸므로 나중에는 강사 한 명으로 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영어회화교실이 매우 즐거운 모양입니다. 첫 번째 교실에서는 좀처럼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아이가 두 번째 교실에서는 제일 앞에 서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단, 교실은 한 번만 실시하는 행사로 열리는 것이 많아 「선생님, 다음에 언제 또 오세요 ? 」라며 물어오는 어린이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요코타쵸와 요네사키쵸의 아동클럽 외에 초등학교의 레크리에이션과 수업 참관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최장소를 늘려가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어린이들이 「선생님 ! 」하며 불러주거나 학교 레크리에이션에서 어린이, 부모와 함께 둥글게 모여 춤을 추는 등 교실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씨도 「어린이들도 대진재를 경험하고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교실을 통해 어린이들도 우리도 활기를 얻고 어린이들의 힘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멤버들의 목표는 발음을 확실히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과 중학생 이상의 어린이들에게도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츠다 자넷 씨 (필리핀 출신) 는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다」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왼쪽부터) 스가와라 엘바 씨, 나카노묘 로사린다 씨, 마츠다 자넷 씨, 무라카미 오르텐시아 씨, 스가와라 마리페 씨

평성 23 년도　협회 사업 및 재무 상황

■사업보고 (개요)

평성 23 년도는 신제도인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함에 있어 임직원 일동은 새롭게 당협회의 목적과 역할・책무를 자각하고 국제교류사업 활동을 통한 공공의 복지 증진을 해가며 「다문화공생지역 만들기」,「교류지역 만들기」,「차세대를 짊어질 사람 만들기」외에도 동일본대진재 해일 피재자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진재 피재자 지원」의 4 항목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실시한 주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제공

다언어 (일・영・중・한) 홈페이지 (접속수 56,882 건) 와 정보지「jien go」(정기호 6 회, 임시호 8 회) 등에 의한 국제교류관련 행사정보와 대진재관련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기관지「이와테 국제교류」의 발행 (2 회) 등

2　일본어 학습지원

거주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지원 서포터 연수회의 개최 (3 회), 일본어 서포터의 등록・활용 (활용 33 건), 일본어교실 운영비 조성 (4 건／175,000 엔) 등

3　외국인 현민의 생활지원

외국인 상담 (446 건), 다언어 서포터 연수회의 개최 (7 회), 다언어 서포터의 등록・활용 (활용 12 건), 사비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급 (10 명) 등

4　강좌・연수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의 개최 (8 회 시리즈), 국제이해 워크숍의 개최 (12 회), 해외 체험・유학 세미나의 개최 (44 명), 인턴쉽 접수 (8 명) 등

5　조사연구

국제이해 핸드북 「세계는 친구 part 2」의 작성 등

6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방문자 146,757 명), 외국인과의 교류회 「찻토란도」의 개최 (12 회),「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의 개최 (국제교류센터 외, 노다무라, 카마이시시, 미야코시에서 개최. 1,769 명), 모리오카 산사오도리 참가 (14 개국 131 명), 외국문화소개 강사의 파견 (31 회), 이와테 국제화 인재 등록・활용 (활용 59 건), 국제교류단체 활동비 조성 (8 건／639,000 엔), 기획전시 개최 (5 회) 등

7　해외 연수원 등의 수입

해외 기술 연수원과 현비 유학생의 서포터 (2 명) 등

8　진재 피재자 지원

진재관련 상담대응 (피재지 순회 상담 7 회 등), 피재지 외국인 등의 마음을 케어하는 「이야기회」의 개최 (30 명), 재해 시에 관련하는 조사연구, 피재지 외국인 상담원의 위촉 (3 명) 에 의한 피재자 지원 등

■결산보고 (개요)

평성 23 년도 결산은 경상이익총액이 6,771 만엔 정도이며, 경상비용총액이 6,561 만엔 정도였습니다.

경상이익은 기본재산의 운용이익 외에 찬조회원의 회비 (수취회비),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수취기부금), 이와테현의 수탁사업과 국제교류센터 업무운영 위탁금 (사업수익), 이와테현 사업보조금과 (사)협력대를 양성하는 회의 동일본대진재 「작은 하트기금」조성금 (수취보조금 등) 등에 의한 수입입니다.

경상비용은 사업비가 4,991 만엔 정도이며, 관리비가 1,569 만엔 정도입니다. 경상경비의 회계구분에서는 공익목적사업회계분은 4,448 만엔이며, 수익등사업회계분은 543 만엔, 법인회계분은 1,569 만엔입니다.

평성 23 년도 결산 개요는 오른편의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기부금・찬조회비의 수입과 용도

평성 23 년도 중에 협회가 받은 기부금과 찬조회비의 총 액은 138 만엔 정도이며,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1　수입총액　1,388,865 엔

○기부금 6 건　211,865 엔 (기본재산기부금 2 건 40,000 엔, 일반기부금 4 건 171,865 엔)

【기부자】(사)일본어교육학회,(재)미노오시국제교류협회, 오야마다수확제실행위원회, 오하타 카요코 님, 이토 토모코 님

○찬조회비　1,177,000 엔 (237 명, 48 단체)

2　용도

(1) 기본재산으로 편입 40,000 엔

당협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장래 당협회 사업활동에 활용됩니다.

(2) 평성 23 년도 공익목적사업으로 활용 1,348,865 엔

진재 피재지의 외국인 등의 마음을 케어하는 「이야기회」의 개최, 정보지「jien go」진재관련 임시호의 발행, 진재 피재외국인의 상담실시,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의 개최, 원 월드 페스타의 개최, 외국인과의 교류회 「찻토란도」의 개최, 국제교류단체 등의 활동사업조성 등 평성 23 년도에 실시한 공익목적사업의 경비 일부에 활용됩니다.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 (요약)

평성 24 년 3 월 31 일 현재　　(단위 : 천엔)

과　목	평성 23 년도	평성 22 년도	증　감
Ⅰ　자산부			
1　유동자산	27,450	24,551	2,899
현금예금	21,894	16,694	5,200
미수금	5,555	7,856	△2,301
2　고정자산	1,108,192	1,050,336	57,855
기본자산	1,102,663	1,045,281	57,382
기타고정자산	5,529	5,055	473
자산 합계	1,135,643	1,074,888	60,754
Ⅱ　부채부			
1　유동부채	6,571	5,499	1,072
미수금	4,253	3,396	857
수탁금	1,008	603	404
가수금	133	405	△272
상여충당금	1,176	1,094	81
부채 합계	6,571	5,499	1,072
Ⅲ　순재산부			
1　지정순재산	1,024,222	9,77,641	46,580
2　일반순재산	104,849	91,747	13,102
순재산 합계	1,129,072	1,069,389	59,682
부채 및 순재산 합계	1,135,643	1,074,888	60,754

(천엔 미만은 생략)

2　순재산 증감계산서 내역표 (요약)

평성 23 년 4 월 1 일 ～ 평성 24 년 3 월 31 일　　(단위 : 천엔)

과　목	공익목적사업회계	수익목적사업등회계	법인회계	합　계
Ⅰ　일반순재산 증감부				
1　경상 증감부				
⑴　경상수익	43,494	5,325	18,890	67,710
기본재산 운용익	10,252	0	10,252	20,505
수취회비	1,177	0	0	1,177
사업수익	17,248	4,998	0	22,246
수취보조금 등	14,644	327	7,988	22,959
수취부담금	0	0	117	117
수취기부금	171	0	0	171
잡수익	0	0	207	207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0	0	324	324
⑵　경상비용	44,488	5,430	15,691	65,610
사업비	44,488	5,430	0	49,918
관리비	0	0	15,691	15,691
당기경상 증감액	△994	△104	3,199	2,100
2　경상외 증감부				
⑴　경상외수익	5,500	0	5,500	11,001
투자유가증권 매각익	5,500	0	5,500	11,001
⑵　경상외비용	0	0	0	0
당기경상외 증감액	5,500	0	5,500	11,001
당기일반순재산 증감액	4,506	△104	8,699	13,102
일반순재산 기초잔고	46,884	806	44,056	91,747
일반순재산 기말잔고	51,391	702	52,756	104,849
Ⅱ　지정순재산 증감부				
수취기부금	20	0	20	40
기본재산 운용익	15,165	0	15,165	30,330
기본재산 평가익	23,859	0	23,859	47,718
일반순재산 대체액	△15,753	0	△15,753	△31,507
당기지정순재산 증감액	23,290	0	23,290	46,580
지정순재산 기초잔고	488,820	0	488,820	977,641
지정순재산 기말잔고	512,111	0	512,111	1,024,222
Ⅲ　순재산 기말잔고	563,502	702	564,867	1,129,072

(천엔 미만은 생략)

| 여러분도 찬조회원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

취지에 찬동하며, 사업을 지지해주실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조 회비는 현내의 국제교류・국제협력・다문화공생의 공익 목적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회원 특전

① 협회 발행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정보지「jien go」
※학생 회원은 Email 매거진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협회기관지「이와테 국제교류」
② 협회 주최 행사 등의 안내를 보다 빨리 안내해 드립니다.
③ 협회 주최의 이벤트나 세미나의 참가비가 우대 할인됩니다.
④ 「에스닉 레스토랑 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여행우대맵」을 발송합니다.제휴하고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① 개인회원…각 3,000 엔
② 단체회원…각 10,000 엔
③ 학생회원…각 1,000 엔

협회의 소정 납부 용지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협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해외 현인회의 현방문 |

브라질 이와테현인회

9 월 27 일, 지다 회장 부부가 내년 8 월에 열리는 브라질 이와테현인회 설립 55 주년 기념식전 안내를 하기 위해 이와테현을 방문했습니다. 이와테현 지사와의 만남 및 피재지 방문 등 적극적으로 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 이와테현인회

10 월 16 일, 이와사키 명예회장이 16 년 만에 귀국하여 NY 일미 라이온스클럽 이토 씨와 함께 현을 방문했습니다. NY 현인회에서는 진재 직후부터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피재지 요구에 맞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기위해 피재지를 시찰했습니다. 또한, 다른 현은 뉴욕에서 물산전 등을 적극적으로 PR 하고 있어서 이와테현도 물산 PR 과 부흥지원을 더욱 해외로 발신하고 싶으며 현인회도 이와테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 기부의 부탁 |

협회는 현민 분들이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또는 현재 거주 외국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국제협력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보다 충실히 진행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의 입장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이나 활성화에 기부했습니다. 협회의 활동을 장기적, 지속적,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재정 기반의 충실에 대한 지원을 부탁합니다.
※협회에 기부하신 분은 세법상의 손금 산입이나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테 국제이해 핸드북「세계는 친구」part3

달려 지나간 남자 ~결승선 너머에~

지금으로부터 76 년 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일본대표로 출장하여 금메달을 딴 조선반도 출신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 손기정
그의 인생에서 「민족」 「평화」 「일한 우호」에 관하여 생각하는 워크숍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2012 년은 올림픽의 해인 동시에 손기정 씨 탄생 100 주년을 맞이합니다.
손기정 씨의 인생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배움과 동시에 앞으로 일한교류에 관하여 생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를 사용한 워크숍 개최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사진
Stand Up Take Action (빈곤 해결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
본협회에서도 참가활동 협력을 호소하여 35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아이나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 5F)

■개관일 매일 ■개관시간 9:00~21:30 ■휴관일 연말연시

발행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020-0045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오리 1-7-1
TEL.019-654-8900 FAX.019-654-8922
인쇄 야마구치호쿠슈인쇄주식회사
〒020-0184 모리오카시 아오야마 4-10-5
TEL.019-641-0585 FAX.019-648-1026